S-타워

S-TOWER

건축주 | 석주민
감리자 |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시공사 | (주)경일종합건설
대지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가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건축면적 | 581.01㎡ / 연면적 | 5,968.67㎡
규모 | 지하 1층, 지상 1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준공년도 | 2010

설계자 _ 이성관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Architect _ Lee, Sung Kwan Hanul Architects & Engineers Inc.

Client | Suk, Joomin
Supervisor | Hanul Architects & Engineers Inc.
Construction | Kyungil Construction Co.
Location | Samduk-dong, Joong-gu, Daegu
Program | Commercial Architecture / Complex
Building area | 581.01m² / Gross floor area | 5,968.67m²
Building scope | B1 – 12F
Structure | RC / Year of completion |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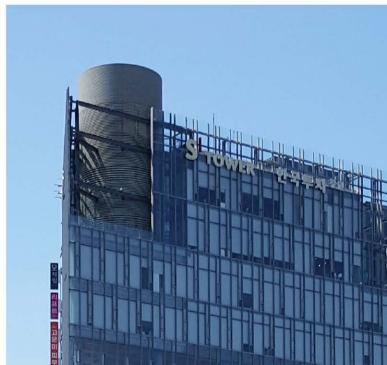
S-Tower는 넓은 도로와 만나는 측면도로가 이루는 모서리가 예각삼 각형이고 높이는 12층이다. 재료는 유리와 프레임으로만 구성된 투명 함, 내부에선 도시의 풍경을, 외부에선 사용자들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 로 보이게 한다. 이는 도시의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건축을 보는 즐거 움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 작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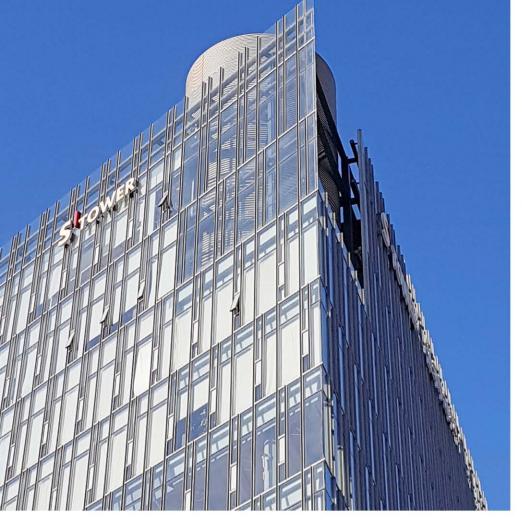
본 건물의 공간감은 옥상정원과 연결된 두 개 층의 수직으로 뚫린 공간과 옆 건물과의 사이에 숨어 있는 설비와 휴게를 위한 공간을 통해 표현되었다.

디자인적 시퀀스는 도시의 가로를 걸으면서 건물이 연출하는 다양한 변신을 즐기는 것이다. 기단부는 굵기가 다른 전면의 원기둥으로 땅과 조우하지만 상부의 스카이라인에서는 하늘과 유리가 바로 만나는 투명 성으로 공간 혹은 형태의 경계가 사라진 파격을 보여준다.















Daegu S Tower has sited at a triangular shaped corner of the side road that encounters the wide road and it is a 12 story building with the transparent material consisting of glass and frame. The building focuses on representing the urban landscape from the inside and the movement of users from the outside. This works as a living organism with the pleasure of seeing architecture for those who are tired of daily life in the city.

The spatial sense of this building was well-explained through the two floors vertically open space connected to the roof garden and the facilities hidden between the adjacent building and a space for rest,

The sequence of design is to enjoy the various transformations the building creates. The outdoor transition zone encounters the ground with a front cylinder of different thickness, but in the upper skyline, the boundary between space or form is disappeared due to the transparency where the sky and glass meet.



